



부처님 오신날 불기 2543년

“정보사회 이끌어갈 참사람 양성”

‘21세기 비전 - 불교교육’

대담

송석구 동국대총장 : 손계석 위덕대총장

2000년이 눈앞에 있다. 격동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새로운 세기는 세계화 정보화가 한층 앞당겨지는 첨단 열린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고(思考)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교육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는 가운데 불교교육의 시대적 과제와 역할에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1906년 불교계 선각자들에게 의해 설립되어 올해로 개교 93주년인 된 조계종립 동국대 송석구 총장과 1996년 설립되어 내실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진각종립 위덕대 손계석 총장의 대담을 마친 ‘21세기 비전-불교교육’의 전망을 듣는다. 두 총장의 대담을 통해 불교 종립대학의 역할을 점검하고 21세기 불교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부처님 가르침에 투철 인간중심 열린교육 21세기 교육의 지향점”

△송석구 총장=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내용을 사회와 인류에게 이해시키고 그러한 이해를 통해서 행복을 삶을 지속시키기 위하여 45년간을 전법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불교교육이 지도자를 중심으로한 강원, 선원 교육이라면 근대에 들어 출가와 재가의 교육이 일체화되고 있습니다. 종립학교는 출가위주의 교육에서 재가·출가의 교육으로 일체화하고, 신형위주의 교육에서 과학·이론적 보편교육으로 대중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손계석 총장=새로운 세기의 교육 역시 지난 시대의 교육을 법고창신(法古創新)하면서 자기자리를 찾아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개혁이라고 하여 실제적 시간을 전제로 논리적 비약을 하거나 교육의 본질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오히려 퇴보로 이어질 것입니다. 불교교육은 지식뿐 만이 아니라 덕성까지 겸비한 지덕겸비(知德兼備)의 ‘완전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까닭에, 지난 시간 지식편중의 잘못된 교육에 균형감을 불어넣어 주는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송석구 총장=동국대가 불교교육의 선도를 해왔지만 불교교육, 불교에 대한 사상이론이 보편화되고 대중화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대학들에서도 불교를 교육시키고 있지요. 시대에 맞는 전인교육을 보완해 불교교육의 수준을 높여야한다는 사명감도 없지 않습니다.

△손계석 총장=자나치게 지식·기술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도덕·역성교육을 소홀히 하는 추세를 일정정도 바로 잡아낸 점이 불교교육의 가치라 할 것입니다. 향후 불교교육은 정보화시대에 맞게 쉬운 靑眼인간화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답변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화라는 초점을 놓치지 않는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하는 것이야말로 불교교육의 미래사회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송석구 총장=많은 문명비판자들은 앞으로의 시대는 불교의 시대라 말하고 있지만 불교인들이 과연 그동안 21세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왔느냐 하는 뼈아픈 성찰이 먼저 정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교리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불자들이 부처님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틀을 새시대에 맞게 짜는 것이 선결요건입니다. 예를 들면 자비와 지계, 보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계석 총장=불교인들의 자기비판과 참회를 통한 자기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이 땅 대중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중들의 알뜰한 귀의가 될 수 있는 데서 희망은 잉태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종단과 각급 불교교육기관에서는 불교인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부처님의 근본가르침에 따라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의 변화는 오직 교육을 경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적인 불교교육을 통한 불교인들의 신행과 생활의 통일’은 또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송석구 총장=21세기 정보화시대는 필연적으로 인간소외를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소외와 허무성을 막는 일이 육바

라일 실천이요, 육바라밀을 관념으로만 알면 안됩니다. 보시 하나라도, 지계 하나라도 잘 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예경하고 마음의 평등성을 인지하고 누구나 마음으로 공경하고 섬기면 바로 내가 부처고 그사람도 부처가 되는 것이지요.

△손계석 총장=정보화는 농업화와 산업화에 이은 인류사의 제3의 물결이며, 저는 ‘인간화’를 제4의 물결로 간주하고 있지요.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 ‘조선불교유신론’에서 진단한 바 있는 ‘문명의 피안’으로

도와 변화를 선호하는 신세대를 양산하나, 이들 또한 전혀 별개의 존재는 아니며, 따라서 이들을 향한 불교교육의 방향은 불성계발의 방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불교적 명상이나 참선, 자성을 찾는 수행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송석구 총장=컴퓨터라는 매개체를 통해 앞서서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서의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인간을 정서적 고갈상태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정보화는 인간을 이성화하는 시기지만 감정적

비대화는 바로 이 인격적 접촉이 불가능한 까닭에 오늘날의 대학을 전면적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끊이지 않는 학내 총기사건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만, 지식위주의 교육이 낳은 병폐인 동시에,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인격적 접촉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겠지요. 고도 정보화사회일수록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게 하는 불교본질에 충실한 교육이 알아야 오메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송석구 총장=불교 본질에 충실하고자 우리 대학은 ‘참사람 열린교육’ 제도를 9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그대로 발휘하게끔 보조하고 개방적이고 평생교육의 의미를

가속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지역이 사랑하는 대학, 그 지역을 사랑하는 대학’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현재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논쟁이 지상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인문학의 위기현상은 사실이고, 이는 상당부분 교육정책의 잘못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을 해 나가며 획일적이고 단세포적인 것대로 학문과 대학을 재단해서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되며, 정부가 개혁이란 이름아래 지나치게 작은 문제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학교육현장의 황폐화라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송석구 총장=첨단정보화시대로 갈수록 백화점식으로 널려있는 인문학이 특성화된



송 석 구

· 1940년 서울 생
· 1962년 동국대 철학과 졸업
· 국립대인대 철학연구소 수석
· 1981년 동국대 철학박사 학위 취득
· 국제종교철학회 회장, 고운학회 회장, 한국종교철학회 명예회장
· 주요저서 <유교의 유, 불 사상> <불교와 유교> 등



손 계 석

· 1931년 포항 생
· 1956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 1978년 서울대 정치학박사 학위 취득
·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미국 하버드대 교환교수, 국제정치학회 회장 등 역임
· 1985~1987년 문교부장관
· 주요저서 <초국가 기구의 역할>, <대학과 대학인> 등

지덕겸비 교육 펼쳐야 ‘삶의 균형’ 회복 종립대학 질적-양적 세계화 추진할때

서의 과학기술의 만개는 인간의 문제를 내재적 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정보화의 진전이 반드시 탈인간화는 아니며, 디지털체가 완성적으로 발달하면 인간화의 실마리도 열린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화란 네트워크화를 말하며, 이는 중심이 따로 없어서 서로를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완전한 정보화가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완전한 정보화하는 점입니다. ‘열린 네트워크’여야 하겠고, 인간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송석구 총장=요새 학생들은 다이나믹하고 활동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맞는 불교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합니다. 비디오 등 첨단 시청각기구는 필수지요.

△손계석 총장=맞는 말씀입니다. 시대변천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도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야 하고, 불교교육의 방법도 개발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화사회는 속

인 정서를 파괴시킬 수도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되면 자아의 독립을 요구하게 마련입니다. 그 자아의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주체적 자아 사상이지요. 불교에 주체적 자아를 확립하게 해서 자아와 자아의 싸움, 그를 통한 자아의 확립을 이끌어주는 禪교육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서구사회에서 선의 불이 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손계석 총장=국내에서도 이미 사이버대학이 많이 운위되고 있으며, 저명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P.F. Drucker)같은 이는 고도 정보화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공간중심의 대학은 사이버대학에 밀려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에 부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과연 그럴 것이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보화사회가 되어도 종이로 된 책이 사라질 수 없듯이, 대학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격적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이

명인 수계를 받았어요. 매년 경주캠퍼스까지 포함 2천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수계를 받습니다. 또 ‘참사람 인종제’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학생성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들을 모집해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학생을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불교를 근본으로 하여 참다운 인간을 양성하는 취지이지요.

△손계석 총장=위덕대는 신라 천년의 고도인 경주에 자리하면서 한국 근대화의 한 상징인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을 점령하고 있고 있어요. 또한 울산도 통학권 내에 있습니다. 이들 세 지역은 21세기 인류문명의 중심축으로 부각되고 있는 환동해권의 중핵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저희 대학은 이러한 지역임지와 연계하여 ‘환동해권 중심대학’을 특성화의 목표로 삼고, 학과 및 연구소 설치는 물론이고, 특성적 교육과정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환동해권 특성화센터’를 설립하여 이들 지역사회의 문화와 산업에 부합하는 대학운영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무한능력자이고 그 마음은 죄도 없고 고도 없고 투정도 없는 것이라 마음 자체의 평등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그런 사람을 기르자는 것이지요. 참사람을 지향하고 개방적으로 평생을 수행으로 삼고 나가는 교육이 바로 ‘참사람 열린 교육’입니다. 이번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학생 참여

명인 수계를 받았어요. 매년 경주캠퍼스까지 포함 2천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수계를 받습니다. 또 ‘참사람 인종제’라는 것을 실시하는데 학생성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들을 모집해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학생을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불교를 근본으로 하여 참다운 인간을 양성하는 취지이지요.

△손계석 총장=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동국대학교에서 한-일 불교철학회 대학총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양 대학은 우선 일본의 종립대학들과 교류해 나가고, 나아가 아시아-태평양지역 불교기관들과 연대하는 것이 세계화의 실질적인 방향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 추세로서의 세계화에 부합하는 대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학을 중시하고, 세계 주요대학들과 학술교류협정을 맺어 교수와 학생을 교류하는 실제적인 세계화 교육정책도 시행되어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성이며, 교류협정에 서명하고 교류실적이 없는 식은 이제 피해야겠지요.

△송석구 총장=종립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관심과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손계석 총장=설립종단과 대학은 종학일체(宗學一體)의 정신으로 서로에게 요망하게 작용해야 하며, 이 정신을 벗어나는 관행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학으로서 최소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점을 공통인식한 가운데, 어려운 현실에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

이경숙 기자(gsllee@buddhapia.com)

부처님 마음처럼...

부처님 마음처럼...

佛紀 2543年(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동국에 오면 마음이 열리고
동국을 나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개교 93년의 역사와 전통의 힘을 바탕으로,
15만 동국인의 민족과 사회발전을 향한 소명의식과
동국발전의 확고한 의지를 한데 모아, 참사람
열린교육으로 새로운 천년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學校法人 東國學園
理事長 吳綠園



東國大學校
總長 宋錫球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TEL : 02)2260-3011 ~ 2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앞장섭니다.

佛紀 2543年(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誂寺

회주 이혜성
주지 김광복

대중일동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TEL : 종무소 02)993-3161 ~ 3, 주지실 02)993-5002
FAX : 02)993-3164